

**GA-1732  
(Study Document)**

**Stewardship as a Spiritual Discipline and its Applications in the 21<sup>st</sup> Century**  
**영적 훈련으로서의 청지기 직무와 21 세기의 적용**

This study document was prepared in response to GA-1536 which authorized the Center for Faith and Giving to prepare a Study Document on Understanding Stewardship as a Spiritual Discipline.

이 연구 문서는 GA-1536 에 대한 응답으로 준비되었으며, 신앙 및 기부를 위한 센터 the Center for Faith and Giving 는 영적 훈련으로서 청지기 직무를 이해하는 연구 문서를 준비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b>A POINT OF ORIGIN AND DIRECTION</b> 기원과 방향의 요점.....	2
<b>THE BIBLICAL WITNESS AND THEOLOGICAL ASSERTIONS ABOUT STEWARDSHIP</b>	
청지기 직무의 성서적 증언과 신학적 주장 .....	3
Abundance and Care for the Earth 지구를위한 풍요와 돌봄.....	3
Sabbath 안식일.....	4
Stewardship as Loving Attention to Body and Mind	
몸과 마음에 대한 사랑의 관심으로서의 청지기직무 .....	6
Stewardship and the Gospel 청지기직무와 복음 .....	7
Stewardship and Resources, Money, and Possessions 청지기 직무와 자원, 돈 및 소유물 .....	8
Stewardship and Generosity 청지기직무와 관용 .....	12
Stewardship and Judgment 청지기직무와 심판 .....	17
Stewardship and the Tithe 청지기직무와 십일조 .....	20
Stewardship and the "Prosperity Gospel"청지기직무와 "번영 복음".....	22
Stewardship as Transformation 변화로서의 지기직무.....	24
<b>AFTER THOUGHTS</b> 추가 사항 .....	26
<b>STATED ASSUMPTIONS</b> 규정된 가설.....	27
<b>FOR CONSIDERATION</b> 고려해야 할 사항.....	28
<b>PRACTICAL APPLICATIONS OF STEWARDSHIP IN OUR TIME AND PLACE IN THE 21ST CENTURY</b>	
21 세기, 시간과 장소에서의 청지기 직무의 실제적인 적용 .....	30

## A POINT OF ORIGIN AND DIRECTION 기원과 방향의 요점

이 문서는 2015 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전국 총회 (GA 1536) 회의의 위탁에 대한 응답으로서 발표되어, 크리스천 교회(제자회)를 위해서 청지기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성찰 문서(*영적 훈련으로서의 청지기 직분과 21 세기의 적용*)로 제공된 것입니다.

이 책임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신앙과 기부를 위한 센터 The Center for Faith and Giving 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2017 년 7 월 8 ~ 12 일 전국 총회 회의에서 성서적 성찰과 일련의 신학적 주장 그리고 교회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청지기 직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장기적으로 자원을 확립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이 문서는 청지기 직무의 주제와 관련된 성서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제공함으로써, 교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에 정통하게 됩니다. 또한 청지기 직무에 관한 교회 내에서의 대화와 교체, 개인과 신앙 공동체로서의 청지기,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신학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잠재적인 결론 중 일부 문서의 관점에 따르면, 실제 적용에 관한 가정이 제안됩니다. 이러한 가정/결론이 21 세기 초의 맥락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은 이 페이지의 끝에 제공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문서의 동일한 결론/가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방식으로* 청지기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주요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더 잘 정의하여 대화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교회가 개인과 신앙 공동체가 있는 독특한 상황에서 청지기가 하는 일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원의 창출은 이 과제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논리적 절정입니다. 1) 심층적인 연구에 필요한 단순한 자료의 양은 이 유형의 문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보다 민첩한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의 변화가 적절하게 그 진술의 어조와 요점을 지시할 것입니다. 3) 전자 수단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무제한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모자이크 자료가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거의 또는 완전 무료로 제공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sup>1</sup> 이 문서를

---

<sup>1</sup> The Center for Faith and Giving 는 웹 사이트를 통해 비디오, 기사, 수필, 커리큘럼, 광범위한 서지 및 기타 청지기직무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 통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The Center for Faith and Giving 웹 사이트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 포털은 교회 전체에서 청지기 직무 관련 부처와의 연결을 식별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sciples Home Missions 내의 Green Chalice 사역에 대한 Faith and Giving Center 웹 사이트의 빠른 연결은 지구 청지기직무 관련 자료를 찾는 CFG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산 및 자료를 열거 할 수 있습니다. Green Chalice 내의 이러한 자료에 대한 CFG 웹 사이트의 미리 색인을 통해, 보다 쉽게 액세스하고 보다 빨리 발견 할 수 있습니다. CFG 현장에 존재함으로써 청지기 직무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덜 분열된 견해를 확증합니다.

받는 교회는 연구와 숙고를 위한 모든 양상의 청지기 직무에 관한 "제자회"관점에서 다음 10 년 동안의 추가적인 자료 개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THE BIBLICAL WITNESS AND THEOLOGICAL ASSERTIONS ABOUT STEWARDSHIP

### 청지기 직무의 성서적 증언과 신학적 주장

*광범위하게 정의된 성서적 청지기 직무는 하나님하신 정당한 소유주를 대신하여 자원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그 생산물)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Abundance and Care for the Earth*** 지구를 위한 풍요와 돌봄

청지기 직무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기초는 창조이야기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창세기 1 장은 신성한 상상력으로 부터 생성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 결론은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sup>2</sup> 사실 여섯째 날에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좋았더라"<sup>3</sup>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에 의한 물질세계의 이 포용은 뒤따르는 모든 것에 대한 관계적인 어조로 설정해 놓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상호 연관성은 신성한 특권이며, 마찬가지로 선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창조물의 표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바라는 것에 순종하는 선택이 포함됩니다.

창조 설화가 전개될 때, 신성한 디자인 안에는 풍요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본문은 야생 생물들의 배열(날개가 있는 것들, 기어 다니는 것들, 헤엄치는 것들)<sup>4</sup>과 하나님이 "먹이를 위해 모든 푸른 식물을 주셨다"는 이 모든 존재를 위한 충분한 생계를 함축해 놓습니다.<sup>5</sup>

이 풍요가 존재하고 영원한 상태가 되도록 의도된 또 다른 증거는 "열매 맺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약속의 첫 번째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풍요는 스스로 생성되고 영속적입니다. 식물은 씨앗과 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나무들은 열매 속에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과 생산물로 가득 찬 나뭇 가지로 무겁게 달린 식물은 끝없는 순환을 일으킵니다. 충분합니다! 창조의 *필요*에는 신성한 섭리가 수반됩니다.

그러나 풍요와 "충분"이라는 행복의 개념은 지구가 어리석은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필요가 지속되거나 만족되어야 한다는 의미 또는 보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 관리를 위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성한 명령/약속의 둘째 부분에는 "...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라"<sup>6</sup>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sup>2</sup> 창세기 1:4; 1:10; 1:12; 1:18; 1:21; 1:25

<sup>3</sup> 창세기 1:31

<sup>4</sup> 창세기 1:20, 1:24

<sup>5</sup> 창세기 1:29-30

<sup>6</sup> 창세기 1:28b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신 방식으로 지상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선하심과 행복을 위해 다스리십니다. 인간은 같은 방식으로 인간에게 지정된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지기 직무의 목표입니다.

청지기 직무는 창세기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력하게 추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있으라!'"<sup>7</sup>는 말씀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더불어"<sup>8</sup>라는 후기 성서의 확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세상과 그의 생산물 그리고 그의 거주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순종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죽을 운명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최고의 임시 거주자 및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에 불과함을 확인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통치권을 표현하고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선하고 가난한 청지기 직무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창세 2:4b-25)에서, 인간의 개념이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으로 다시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5 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보호하고 섬기라하시고"<sup>9</sup>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천직을 가지고 있으며, "Tending 보살핌"의 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에덴동산은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청지기 직무의 기능 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하여 정원의 거주 동물들에게도 최고의 이익이 됩니다! 지구의 건강과 지구에 살고있는 모든 생물의 건강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는 참으로 낙원이었지만, 그것을 낙원으로 만든 것은 일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sup>10</sup> 청지기의 역할은 인간의 부르심의 일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 ***Sabbath 안식일***

풍요와 관계의 이중 주제는 일곱째 날의 새벽, 안식일에도 계속됩니다. 바로 안식일의 선포/엄수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제공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노동은 단지 6 일 동안만 요구되지만 아직 7 일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풍요입니다! 부족의 두려움과 필요의 염려는 쉬기 위해서 놓여질 수 있으며,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이끌거나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식일은 또한 신성/인간 관계의 본질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은 영광적인 활동 때문에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본질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명하셨고 그것을 창조의 구조 안에 세웠습니다. 이 명령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함을 부인하고 실존적 기억 상실의 형태로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피조물), 우리가 누구의 것(창조자)인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

<sup>7</sup> 창세기 1:3

<sup>8</sup> 시편 24:1

<sup>9</sup> 크리스천 신학교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의 Carol Johnston 목사가 제공한 번역

<sup>10</sup> 창세기 3:8

안식일에 관련된 몇 가지 본문은 이 주제들을 강화시킵니다. 출애굽기 16 장은 풍요와 공급을 더 확증하는 광야의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sup>11</sup> 일뿐만 아니라 각 가정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sup>12</sup> 두배의 몫을 모아서 두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저장하면(그 다음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서 벗어나 탐욕이나 나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와 악의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sup>13</sup> 이 이야기의 상황은 광야 방향에 대한 더 넓은 신뢰의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출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크리스천 교회로서, 물론 우리가 만나에 관해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메아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sup>14</sup>를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가?

출애굽기 20 장의 십계명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휴식을 취하고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지켜졌습니다.<sup>15</sup> 봉사자, 체류자(외국인), 짐을지는 짐승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체가 휴식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대 행사는 레위기 25 장에서 땅에까지도 연장되었지만, 땅을 위한 휴식의 주기는 수 일이 아니라 수년입니다.<sup>16</sup> 모든 것은 쉴 필요가 있고, 규정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한 부분은 이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5 장에의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를 신성 및 인간 관계의 의미에 관해 또 다른 관점에서 고려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의 숙박으로 부터 구출이고, 하느님께서 노예의 멍에를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된 청지기 직무는 부분적으로 돈과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십계명은, 사실과 요점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관계가 도덕적 규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sup>17</sup> 신명기 5 장 12-15 절에 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매주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출 행위(창조물의 일곱째 날에 거룩한 휴식을 상기시키는 것만이 아님)를 정기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쉬는 날을 갖지 않으며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게 뻗은 손"<sup>18</sup>에서 옵니다. 둘째, 파라오 밑에서 노역한 이유는 공급 도시를 위한 벽돌을 만드는 것이 었습니다(모순된 풍요로 생산하는 이집트의 믿을 수 없는 신들에 대한 파라오의 방지책). 셋째,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는 경제적입니다(이집트 군부의 패권에 의해 시행되는 값싼 노동). 파라오는 벽돌 계정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나일강 통치자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그들의 능력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

<sup>11</sup> 출애굽기 16:15

<sup>12</sup> 출애굽기 16:18

<sup>13</sup> 출애굽기 16:20

<sup>14</sup> 출애굽기 6:11

<sup>15</sup> 출애굽기 20:8-11

<sup>16</sup> 레위기 25:1-7

<sup>17</sup> 자세한 내용은 Walter Brueggemann 을 참조 :돈과 소유, 해석; John Knox Press 2016. pp15-33.

<sup>18</sup> 출애굽기 5:15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출은 이스라엘이 생산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나, 창조의 일부분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대한 억압의 외침을 들었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경제적 계약이 아닌 관계에 기반을 두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명령을받습니다.<sup>19</sup> 삶의 질과 생산량을 중시하는 사회 제도에서 생산 스케줄에 기여할 수 없는 노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사실, 법의 두 번째 완전한 테블렛은 인간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인간 관계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것은 이웃의 소지품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포함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아래의 재정 및 물자를 고려할 때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 ***Stewardship as Loving Attention to Body and Mind* 몸과 마음에 대한 사랑의 관심으로서의 청지기 직무**

유태인의 생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는 육체입니다. 영 spirit 으로부터 육체 body 의 분기와 분리는 교회의 인식에 늦게 도달하였으며, 신약성서 사상의 좁은 부분만을 차지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친숙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와 금욕주의자 운동이 초기 교회의 내부에서 함께 성장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영혼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믿음의 혜택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섯째 날에 물질적 창조(구체화된 인간 피조물 포함)가 "매우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 몸의 가치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질서 자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sup>20</sup>조차도 본질상 실제로 물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붕괴될 수는 없다고 상상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성서문학에 더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사람들 사이에 내재합니다"<sup>21</sup>라는 말과 하나님은 여전히 "목 마른자에게 물을 줄 것"<sup>22</sup>이라는 말은 단순히 영적이고 육체가 없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어떻게든 육체적인 영역을 더 제안합니다. 이 형태가 영원한 상태에서 계속된다는 것은 육체적 존재를 확인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sup>23</sup>라고 제안할 때, 우리는 그가 마음속에 도덕적 순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이것은 몸과 영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서, 우리 몸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우리가 바쳐야할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학대와 가난한 체질로 건강이 부서진 몸은 우리가 제시할 수있는 최고의 "살아있는 희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한 몸은 제물의 완전한

---

<sup>19</sup>이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은 Sabbath As Resistance, Walter Brueggemann, John Knox Press, 2014. 참조

<sup>20</sup> 요한계시록 21:1

<sup>21</sup> 요한계시록 21:3

<sup>22</sup> 요한계시록 21:6

<sup>23</sup> 로마서 12:1

면모와 유익한 배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화려한 선물만 가진 불쌍한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몸은 존중 받아야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내재하는 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sup>24</sup> 성령을 위한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sup>25</sup> 안식일과 같은 휴식과 갱신을 포함한 자신의 돌봄과 몸의 좋은 건강을 위한 지원은 청지기 직무에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 그리고 사도들이 언급한 신체 건강 문제는 치유가 하나님의 우선권으로 간주됩니다. 좋지 못한 건강은 지역 사회와 분리되며, 치료 가능한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온전을 원하는 사람을 거부하게 됩니다. 인간의 건강과 온전함의 방향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이동시키는 것은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맥락에서 충실한 청지기 직분의 한 측면입니다.

### ***Stewardship and the Gospel* 청지기 직무와 복음**

"당신은 다양한 컬러의 하나님 은혜를 입은 청지기입니다."<sup>26</sup> 베드로 전서 저자는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바울의 말씀과 함께 공감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라 명백합니다: *오이코노모스 oikonomos*는 "청지기 steward"로 번역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청지기(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복음과 죽음 자체가 정복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관리인 Caretaker)입니다.<sup>27</sup> 그 사랑은 창조시에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가장 충실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이야기이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신뢰하는 은사이며, 충실한 청지기로서 말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과 전도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낼 빛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그릇 아래에 두어서는 안됩니다.<sup>28</sup> 때로는 업무의 단순성과 중요성의 중력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나타내어집니다. 우리는 삶에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변형된 삶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알지 못하게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우리가 제자회 DOC로서 알고있는 특별한 방식에서)가 이 세대를 초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젠 더 넓은 흐름의 기독교 사상과 증거에 있어서, 우리의 지류는 항상 흐르는 강가에 더해지지 않고 잃어버리게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

<sup>24</sup> 고린도후서 4:7

<sup>25</sup> 고린도전서 6:19

<sup>26</sup> 벨후 4:10, 번역 : 크리스천 신학교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의 Ronald J. Allen 목사

<sup>27</sup> 로마서 8:38-39

<sup>28</sup> 마태복음 5:15

제자회 Disciples of Christ 전통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앤드류 Andrew 의 사역을 높이 세웠습니다.<sup>29 30</sup>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촉구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sup>31</sup>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가치있는 경험을 접해야 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교회)에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sup>32</sup>는 큰 위임을 주셨습니다 - 청지기가 주인이 없는 가정을 관리 하듯이,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재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sup>33</sup> 4 복음서 기록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실 때, 그는 우리(교회)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천직입니다.

### ***Stewardship and Resources, Money, and Possessions 청지기 직무와 자원, 돈 및 소유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물 사이의 관계가 종종 성경에서 선택의 하나로서 특징 지워지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부)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sup>34</sup> 이것은 명백한 선택입니다. 돈은 강력한 종을 만들지만 형편없는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의 소유를 안전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성실의 자리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체로 물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행복을 지키기에 충분할 수 없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조금만 더", 그리고 "훨씬 더"등의 욕구가 언제나 생길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 보다 더 작은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돈을 거저 줄 수 있을 때, 당신의 힘이 그 돈 위에 있음을 증명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 돈은 당신 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세 공관 복음서는 각각 예수님 앞에서 질문한 부유하고 젊은 관리인 사람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sup>35</sup> : 우리의 대부분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두 번째 테블릿을 인용함으로써 인간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했다"는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그를 더욱 공격합니다. "가서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sup>36</sup>

---

<sup>29</sup> 요한복음 1:41

<sup>30</sup> St. Andrew 의 십자가는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뿌리를 일깨워주는 성배로 장식되었습니다.

Andrew 는 스코틀랜드의 수호신 Patron Saint 입니다.

<sup>31</sup> 마가복음 1:28; 1:45; 2:7; 5:20; 6:56; 및 7:36-37 (예)

<sup>32</sup> 마 28:20; 막 16:15; 눅 24:47

<sup>33</sup> 마 10:7; 막 6:12; 눅 9:2

<sup>34</sup> 마태복음 6:24

<sup>35</sup> 마 19:16-30; 막 10:17-31; 눅 18:18-30

<sup>36</sup> 마가복음 10:21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돈을 내던지고,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내려 놓고(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나를 따르거나, 물질을 가지고 머물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던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 그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재산이 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생명력이 없는 부를 선택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소유물의 힘이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의 본질과 명확성은 위대한 계명의 첫 두 가지를 연상케합니다: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sup>37</sup> 첫 번째 계약은 우리들에게 종종 반복되는 주문 mantra 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준비 할 때, 그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들을 배회할 것인가?<sup>38</sup>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주 적은 시간!) 선택하여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풍요의 원천을 기억할 것인가? 변영은 우리 재산을 원하는대로 충실하게 다루는데 큰 위협이 됩니다. 시간이 충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관대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풍요의 궁극적인 원천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어떤 행운으로 인해 얻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변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더 비판하며, 아마 게으르다고 믿습니까? 풍요의 한가운데에 있는 불충실의 위험에 관한 경고 (특히 신명기 8 장)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겨냥합니다. 당신의 공급의 진정한 원천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제자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유혹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초 조상들 앞에 놓인 선택과 그 유혹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움을 고려해 보십시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sup>39</sup> 에덴동산에서 스스로의 선택조차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과일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인간 이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 자신의 조건으로 세상에 살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에 가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청지기 직분은 정당한 소유권 (모두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창조질서에 있어서 "정당한 장소"(우리는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위탁 받음)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는 대조적으로 "충분함"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스러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자원에 대한 충실한 청지기 직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10 계명의 7 번, 8 번, 9 번 및 10 번 계명과의 연관성은 명백합니다 (간음, 도둑질, 거짓말 및 탐욕에 대한 금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

<sup>37</sup> 출애굽기 20:4

<sup>38</sup> 여호수아 24

<sup>39</sup> 창세기 3:1

것을 취하거나 바라는 것은 인간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거나 우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진리를 남용하는 것은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며 창조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과 풍요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잃어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은 방어적인 태도, 불신에 의해 가려지는 관계, 사재기에 대한 자기 정당화를 만들어 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sup>40</sup> 우리는 우리의 돈이 마음과 영혼의 벤처를 향하여 자연스럽게 흐를 것이라고 믿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데빗카드 명세서의 원장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돈을 찾아내면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표책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교회 예산)은 신학적 문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에 투자하고 있습니까(보물을 하늘에 저장)?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현재의 소유가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여서, 더 많은 "재료"를 찾고 있습니까? 또는 정의와 온전함과 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에 대해 관대해졌습니까?

이러한 탐욕스러움은 개인의 문제 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을 잘 보살피는 것은 우리의 재산과 "비축"기금 및 우리가 공동으로 신뢰하는 모든 우리의 (육체적, 인간적, 영적)자산을 점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잘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무엇을 하고있는가?"라는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개혁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스스로 이해하는 교회의 끊임없는 질문이며, 이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 재화, 특히 우리의 돈과의 관계가 선택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주목했습니다. 부와 자원은 그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물질에 대한 관심사의 실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정의합니까? 또는 그들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용할까요?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sup>41</sup>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이 돈과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일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진리를 인생의 유일한 추구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개인과 기업 모두)의 결과로 남겨진 황폐와 연결시키는데 거의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욕망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원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

<sup>40</sup> 마태복음 6:19-21

<sup>41</sup> 디모데전서 6:10

누가 복음은 엄청난 수확물을 생산하는 땅의 농부를 생각 나게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헛간이 들판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만(타인의 부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 대화를 나누면서 오래된 창고를 없애고, 그 수확에 알맞은 새 창고를 짓고, "나머지 날에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낼" <sup>42</sup>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은 이와같으니라."

우리는 유산에 관한 대화가 개인과 교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또는 우리 기관의 지속 가능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순간을 위해 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청지기 직무를 이해한다는 것은 장기 기증에서부터 장례식(특히 비용)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으로 "평생" 모든 것에 관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조직을 위해 계획된 선물을 남기는 것에 대한 의도는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다른 비영리 단체들은 기부자들과 후원자들에게 인생 끝날 때 선물(아마도 사람이 만들어낼 가장 관대한 선물)을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고려를 하기를 기꺼이 요구해서는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지역 사회에 자유롭게 흘러 들어가는 대신,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보장한다는 축복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보류될 수 있습니다. 돈은 원래 상품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시적인 교환 매체였습니다.<sup>43</sup> 에릭법 Eric Law 은 "돈의 원래 목적을 놓치고 그것을 상품으로 축적하기로 결정했을 때, 교환의 매개체로서 움직이지 않고, 경제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라고 상기시킵니다.<sup>44</sup>

금세기 초에 우리는 이것이 청지기 직무의 실천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의 영향에 대한 관심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2017 년 1 월에, 8 명이 지구 전체 인구의 총 50%가 넘는 자원의 부를 축적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sup>45</sup> 이 엄청난 현상은 세계 빈곤의 여파로 더 큰 이익과 돈의 흐름을 위한 자원 관리 모두에 있어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8 명 집단"의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부에 대해서 관대하여,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에 투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필요한 기본 요소가 없을 때, "첫 10 억 후에 얼마나 많은 수십억 달러가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공급 측면 및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허용되는 반면에, 그러한 소수의 부의 집중은 받아 들일 만한 모든 성서적 모델에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충분할까요?

---

<sup>42</sup> 누가복음 12:13-21

<sup>43</sup> Dr. Eric Law, 거룩한 통화 Holy Currencies; Chalice Press, St. Louis, MO. 2013 p. 133ff

<sup>44</sup> ibid

<sup>45</sup> 201 년 1 월 17 일 Oxfam 과 CBS Evening News 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Bill Gates, 750 억 달러; Amancio Ortega, 670 억 달러; Warren Buffett, 608 억 달러; Carlos Slim Helu, 500 억 달러; Jeff Bezos, 452 억 달러; Mark Zuckerberg, 446 억 달러; Larry Ellison, 436 억 달러; Michael Bloomberg, 400 억 달러. 이것은 36 억 인구의 경제력, 즉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자를 생산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억압된 임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돈이 집중된 소수로 이전되는 허락된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불충분한 수입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부채를 탕감할 때 사람들은 더 악화됩니다. 대금업자가 파렴치하거나, 이자율이 너무 높거나, 대출 조건이 불합리한 경우 그 사이클은 사실상 깨지지 않으며, 심지어 더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수의 사람으로 흘러갑니다. 새로운 파라오 Pharaoh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제국의 관행은 세금, 노역, 노골적인 정부가 허락한 도둑질을 통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행동을 모방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였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제정한 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고, 그러한 행동이 이스라엘의 몰락과 그 후의 망명에 기여했다고 믿었습니다.<sup>46</sup>

즉, 교회는 또한 부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들을 사역하고 가치있는 정죄로 무시하는 것 보다, 그들의 영적 필요에 쉽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내의 학자들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특혜 선택권을 분명히 강조했지만,<sup>47</sup>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의 행복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sup>48</sup>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각 자녀의 인간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부의 위험과 의무를 알려주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1)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능력, 2) 하나님 대신 돈을 의존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자보다 가난한자를 더 사랑 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각 개인에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모두 교회가 동등한 책임을 지는 영적 육체적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많이 기대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sup>49</sup> 부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염려합니다. 그들은 또한 돈 부족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제한하는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의 라벨을 지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sup>46</sup> 아모스 2:6-7; 5:10-12; 6:3-7, 12; 8:4-6; IS2:1-11; 미가 2:1-5; 6:9-15

<sup>47</sup> 1891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톨릭 회칙 *Rerum Novarum* 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의를 지지합니다. 최근에 교황 프란시스의 '라우다토 시 *Laudato Si'*'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지구상에서 겪어온 환경 황폐화와 토지(기후 변화)를 그들의 몸(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자비한 소비주의와 영적 및 육체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비난의 대상입니다. 제자회는 GA 8735 "경제 시스템 - 제 3 세계에 대한 영향 - 기초 연구"를 포함하는 우려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역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의 확언에 관한 섹션이 있습니다. Judeo-Christian 전통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은 빈곤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39 항).

<sup>48</sup> 마 19:24; 막 10:25; 눅 18:25

<sup>49</sup> 누가복음 12:48

## **Stewardship and Generosity** 청지기 직무와 관용

하나님의 백성을 후원하는 모델은 자원을 나누는 것 중 하나입니다. 두 성서에는 가난한 자와 취약한 자를 위한 경제적 보호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수집(주워 모은 것)<sup>50</sup>, 담보의 전당<sup>51</sup>, 이자의 청구<sup>52</sup>, 임금의 공정한 지불<sup>53</sup>, 부채 상환<sup>54</sup> 및 빈곤층에 대한 관대한 행위와 관련된 법률이 포함됩니다(과부, 고아 및 객/체류자 포함).<sup>55</sup>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가장 강조되며 "...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sup>56</sup>

이 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면 삶과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거되고 죽음과 소외로 끝날 것입니다.<sup>57</sup> 교회가 열망하는 이상적인 행위는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곳으로서, 공동체 내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sup>58</sup> 이것은 부과된 경제체제(예:사회주의)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사실상 진실한 평등주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화해를 통해 생겼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sup>59</sup> 사실,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죽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sup>60</sup>

세상에 있는 그러한 방법은 권위나 강요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흘러 나오는 제자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제물과 기부금을 얻기 위한 바울의 호소는 신약성서 안에서 이러한 행동의 한 모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은 궁핍하여서,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이스의 이방인 교회로부터 재정

---

<sup>50</sup> 신명기 24:19-22; 레위기 19:9-10

<sup>51</sup> 신명기 24:6, 10-13

<sup>52</sup> 신 15:1-3; 23:19-20; 레 25:35-37; 출 22:25

<sup>53</sup> 신 24:17-18; 약 5:4

<sup>54</sup> 신 15:1-11; 레 25:10

<sup>55</sup> 신 14:28-29; 신 26:12. 또한 다음 텍스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 19:17; 잠 22:9; 14:21; 21:13; 58:7-8; 히 12:16; 마 5:42; 딤페전 5:8; 눅 3:11; 약 1:27

<sup>56</sup> 신 15:7-8, 10-11; 이 본문은 마 5:42 에서 예수님에 의해 다시 쓰여졌습니다.

<sup>57</sup> 신명기 30:15-20

<sup>58</sup> 사도행전 2:43-47, 4:32-37

<sup>59</sup> 야고보서 2:1-10

<sup>60</sup> 야고보서 2:14-16

지원을 찾기로 마음을 먹습니다.<sup>61</sup> 고린도전서 첫 번째 서신 끝에서, 바울이 그곳에 모여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지시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제물에 대해 배웁니다.<sup>62</sup>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도와 규율로 이 헌금에 접근하도록 권장합니다. 매주 그들은 무엇인가를 제쳐두고, 그가 도착할 때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선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받아 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참으로 기질있는 제안임을 시사합니다. 헌금이 생각과 준비와 함께 주어진다라는 사상은 우리 자신의 교회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헌금을 만들고 받는 데 준비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노력에 합당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8,9 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지지하는 바울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지지 않도록" 격려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도록 분명히 호소할지라도, 바울은 죄책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up>63</sup>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점에서 뛰어나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이제 그들이 관대함에서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들이 그들의 수단을 넘어서 주기를 원하지 않으나, 그들이 자유롭게 주길 기대합니다. 양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개별 역량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바울은 미래에 상호 관계의 가능성과 함께 고린도의 풍요와 예루살렘에서의 궁핍 사이의 균형을 제한합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16 장에서 나온 광야의 만나에 관해서, 위에서 살펴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sup>64</sup> 풍요로움은 다른 것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므로 *모든 사람이* "충분"하고 *아무도* 식량이 없이 지내지 않습니다.

이 선물이 관대해야 한다는 것은 바울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에서 분명해집니다.<sup>65</sup> 이것은 선물 그 자체가 의미있고 심사숙고와 함께 제공된다는 생각을 더욱 확언합니다. 관대함은 예수님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것은 비용이나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우리도 아낌없이 주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적게 뿌리는 것은 적게 거두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거두어 들이겠다는 기대와 함께 풍성하게 뿌려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그 기부를 의지의 행위(선택)로 놓습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주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꺼림과 억지 없이 주어야 합니다!<sup>66</sup> 자신이 줄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당신은 감사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하고, *얼마간은 더 있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 더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

<sup>61</sup> 이 헌금이 예루살렘에있는 가난한자를 위해 특별히 제공된 것인지 아니면 이 헌금이 돈을 분배하기 위한 어음 교환소 clearing house 역할을 할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받아 들여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제자 회 선교 기금 Disciples Mission Fund 과 같은 공동 선교 기금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 기원되어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역 공동체의 즉각적인 맥락을 넘어서면서도, 다른 신앙 공동체와 협력한 사람들을 위해 훈련되고 의도적인 헌금을 제공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현관 계단에서부터 지구 끝까지" 라는 크리스천 교회의 미션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up>62</sup> 고린도전서 2:14-16

<sup>63</sup> 그는 나중에 자부심과 함께 관대함을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명성을 지킬 것입니다. 고 후 9:3-5

<sup>64</sup> 출애굽기 16:18

<sup>65</sup> 고린도후서 8:9

<sup>66</sup> 고린도후서 9:7

누군가가 식사를 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머물며, 위로를 받거나 잘 만들어 지리라는 것을 아는 것 - 그것은 우리 안에서 깊은 기쁨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기부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부는 하나님의 신뢰성에 기초를 두며, 선물이 주어지면 송영 doxology 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sup>67</sup>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감사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결코 방문하지 않지만, 우리가 언젠가 그 재료들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하는 지하실과 저장고의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놓아 둘 수 있고 우리는 관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덤불에있는 숫양이든,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기치 못한 친절이든, 그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관대함을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의 조건에 따라 생활할 때 미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관대한 일이 복음 선포의 연장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파트너십(*koinonia*)은 이질적인 사람과 문화에 의해 예루살렘 성도들 대신 친교를 맺어서, 이러한 차이를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단결을 확증합니다(BC 1 세기에 고린도와 예루살렘 의 더 다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관용의 표현이 영의 열매입니다.<sup>68</sup> 이것은 개인이 신앙 안에서 살아 있다는 증거의 일부입니다. 탁월한 관대함은 그리스도의 온 몸의 유익에 기여하는 영적 선물입니다.<sup>69</sup> 성도들의 필요에 공헌하는 것은 바울이 충실한 제자의 표로서 격려하는 많은 덕목 중 하나입니다.<sup>70</sup>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해당됩니다.

관대함은 성경적 증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 집니다. 바나바로 알려진 시프러스 Cyprus 의 요셉은 재산을 팔아서 전체 수익금을 초기 교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는데, 성령의 영향을 받아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선물을 놓았는데, 그 결과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sup>71</sup> 였습니다. 공동체의 관대함은 공동체를 지지했으며 복음의 증거를 추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제자 다바다 Tabitha 의 부활 이야기를 전합니다.<sup>72</sup> 그녀가 "선한 일과 자선 활동에 전념했다"는 것이 우리의 주목에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다바다의 죽음으로, 옴바 Joppa 에 있는 교회에 위기가 오게되고, 사도 베드로 Peter 는 긴급으로 소환됩니다. 베드로는 다바다가 일생 동안 도움을 주었던 슬픔에 잠긴 과부들을 만나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그녀가 짜서 주었던 옷을 전시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을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문화에서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

<sup>67</sup> 고린도 후서 9:11

<sup>68</sup> 갈라디아서 5:22

<sup>69</sup> 로마서 12:8

<sup>70</sup> 로마서 12:12

<sup>71</sup> 사도행전 4:34-37

<sup>72</sup> 사도행전 9:36-43

사람이 방을 나간 후,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의 시체를보고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하고 말을 할 때에, 그 이야기는 절정을 이룹니다. - 그리고 그녀가 일어납니다!

신중하게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가 Luke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하늘로 승천),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또한 자선 활동의 소명에 대한 의도적인 확인을 발견합니다. 사도들의 일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한 사람은 죽었다가 생명을 얻은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건 단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바다였습니다. 타인을 돕는 일에 헌신한 다바다는 우리가 이 같은 일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관용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관대함은 행복, 건강 및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목적 의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스미스 Christian Smith 와 힐러리 데이비슨 Hilary Davidson 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sup>73</sup>, 관대한 행동과 웰빙에 대한 개인적인 감각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잠언에 나오는 진리를 언급합니다.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sup>74</sup> 관용은 당신을 위한 선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육신화된 관용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 장의 원대한 산문에서부터 빌립보서 2 장의 웅장한 찬송가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서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풍성하고 관용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속에서는 항상 충분합니다. 복음서는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소외를 극복 할 수있는 충분한 은혜, 위로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연민, 죽음 자체를 극복 할 수있는 충분한 사랑을 가진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여전히 교회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염려를 덜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친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격을 드러내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영화로운 영광을 가리키는 기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생산된 와인의 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면한 상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 이상의 풍요입니다.

4 명의 복음 전도자 모두는 5000 명을 먹이는 기적을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필요에 직면하여, 예수는 남은 음식으로 가득찬 바구니가 있도록 필요한 것 이상을 제공합니다. 교회가 규정 자체를 넘어서 인식하는 것은 교회가 음식의 필요성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을 보고<sup>75</sup>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sup>76</sup>라고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여러

<sup>73</sup> 관대함의 역설 : Giving We Receive, Grasping We Lose, Christian Smith & Hilary Davidson, Oxford Press (2014) .

<sup>74</sup> 잠언 11:24-25

<sup>75</sup> 예수님이 복음서 속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마찬가지로 교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sup>76</sup> 마 14:13-21; 막 6:31-44; 눅 9:10-17; 요 6:5-15



측면이 제기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교회)가 당면한 필요를 채우도록 성취하기를 기대하십니다. 2)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비록 부족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충만해집니다. 관대함과 풍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신성한 인간 관계!

또한 받은 관대함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되는 관대함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요소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또는 그녀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반면, 4 복음서 모두는 향기로운 향유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족하지만, 4 명의 저자 모두 향수의 가치가 크다 (1 년 내내 봉급을 받을 가치)고 확신합니다. 그 행위는 감사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짓은 *과도한* 관용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독자에게 질문을합니다. - 당신이 1 년 급여를 한꺼번에 주었을 때, 당신에 대한 동기 부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깊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관대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청지기직무의 응답의 일부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 핵심에, 선물이라는 믿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예물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때, 그는 그들이 준 선물이 의무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현실임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관대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 도처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문둥병 환자<sup>77</sup>의 겸손한 복귀이든, 회개한 죄인의 신선한 순종이든, 저녁만찬 식탁에서 은혜의 말을 하든, 감사는 관대함을 위한 온상입니다.

많은 청지기 직분의 설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과부의 잔돈 이야기입니다.<sup>78</sup> 액면 그대로, 관대함과 신앙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두 렘돈(copper coins, 그녀의 모든 소유)를 성전 제물에 바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성전 헌금함에 넣는 선물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서는 그 선물을 보고 그 참된 가치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녀의 기부는 그녀가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큰 신뢰를 나타내는 참으로 엄청난 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선물은 상당히 많았을지라도, 비교해보면 약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현실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각 복음 안에서 그 본문을 읽는 것에 대한 경고문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은 종교 계급- 경건과 특권의 함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sup>79</sup> 교회는 관대한 사람들을 먹이로 삼을 수 없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도 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관대함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때, 또한 그들을 대신하여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실행해야 합니다.

---

<sup>77</sup> 누가복음 17:15

<sup>78</sup> 막 12:41-44; 눅 21:1-4

<sup>79</sup> ibid

## **Stewardship and Judgment** 청지기 직무와 심판

충실히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선택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청지기 직무의 관련 주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Luke 특수문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문에 있는 거지를 무시한 부자를 기다리는 가혹한 처벌을 봅니다.<sup>80</sup> 부자가 자주색 옷(상당한 부의 표시)을 입고 매일 매일 호화로운 식사를 할 때, 가난한 사람 (나사로라 Lazarus 는 이름 -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은 문에 앉아서, 상에서 떨어지는 먹다 남은 음식을 구걸하는데, 그의 몸은 온통 상처 투성이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굶주림에 대해 매일 모른 채 했던 부자가 나사로를 알지 못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들의 상황의 본질은 고대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은 빵을, 중산층은 빵과 소스/야채를, 부자는 빵과 소스와 고기를, 그리고 엄청난 부자는넘치는 빵을 가졌는데, 그들은 손을 깨끗이 닦기위해서 그것을 냅킨처럼 사용했습니다. 나사로는 본질적으로 그의 굶주림을 막아주는 부자의 냅킨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한 것과 같이, 두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 Hades 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너무 만연하면서 큰 반전은 사후에서 그들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부자는 이제 나사로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남은 다섯 형제에 대한 큰 우려로, 부자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의 운명을 경고하도록 호소합니다. 그들이 변화하지 않고 가난한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러나 그 형제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왜 권함을 받겠는가?

이 이야기를 되돌아볼 때, 이 세상에서 그들의 경제적 여건이 엄청난 격차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사후에 그들의 운명(특히 부자)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궁금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 넓은 관용을 베풀었다면, 내세에서의 그의 형벌이 너무 가혹했을까요? 그렇지 안했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죽은 자에게서 돌아온 자" 모두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경고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태 복음의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양과 염소 (또는 국가의 심판)의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과 그렇지 않을 자들 사이의 최후의 결산과 판결로 설정됩니다. 운명 사이의 구별은 명백합니다. 우리들의 자원의 이용, 연민, 정의 의식에 관한 선택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sup>81</sup>

---

<sup>80</sup> 누가복음 16:19-31

<sup>81</sup> 마태복음 25:34-37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기준에 관한 신약성서에서 가장 긴 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교리적 또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간다운 필요를 보증하는 것입니다.<sup>82</sup>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혈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혈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본문은 거의 논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청지기 직무는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 중 최소한의 필요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 존재하고 아직 성취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참여합니다.

심판에 있어서는, 우리는 또한 공동체에서 주고 받는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정직성과 성실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 장에서, 바나바 Barnabas 의 큰 선물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5 장에는 아나니아 Ananias 와 삽비라 Sapphira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또한 땅을 팔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수익금의 일부를 감춥니다. 이것이 베드로 Peter 에 의해서 드러날 때, 그는 아나니아 Ananias 에게 그(Ananias)가 토지를 팔거나 판매 수익금 전체를 공동체에 제공하도록 강요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행 5:4, 현대인의 성경>) 그 대신, 그는 선물이 그보다 더 관대하다고 주장(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선물하는 것 <행 5:1>)하면서 거짓말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 아나니아가 넘어지고 죽습니다! 게다가, 삽비라 Sapphira 가 몇 시간 후에 나타나서 질문을 받을 때, 그녀 역시 거짓말을 합니다(아직 남편의 운명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녀 또한 넘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에 관해서 거짓말한 이 두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힘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교회가 고려해야 할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온 마음이 하나님께 전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행동은 공동체 사회에서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투자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충실한 청지기 직무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전부"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나라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

<sup>82</sup> 그리스인에게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징후가 있지만, 그러한 실행이 전체 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서의 전통은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땅에있는 모든 사람과 가난한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안식일 준수 등을 포함합니다.

청지기 직무는 우리가 일하는 일생의 규율의 영향에 관해 무엇이 돈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헌신의 차이가 만들어질 때, 삶과 죽음의 문제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가르 칠 때 -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우리는 그러한 결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sup>83</sup>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Laodicea 교회에 비슷한 경고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sup>84</sup>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 ***Stewardship and the Tithe 청지기 직무와 십일조***

보통 사람들은 민수기와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수집한 지침을 제외하고는 십일조(일반적으로 돈과 비교했을 때)가 성경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투 후에 아브람이 멜기세덱왕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람이 그 중 1/10 을 헌납할 때, 창세기 14 장에 십일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sup>85</sup>

신명기 Deuteronomy 에 나오는 십일조에 대한 가장 상세한 토론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sup>86</sup> 이것은 한 접시씩 가져와서 먹는 저녁 만찬 축하입니다! 십일조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땅이 그들의 이익을 산출한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당신은 조금 또는 많이 가지고 있든, 당신이 가진 것의 10%를 가져올 때, 전체 공동체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원천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항상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창세기 1 장의 주장은 우리를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 되돌아 가게합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시키는 풍요의 원천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농업과 목축 기술이 좋을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만이 자랄 수 있게 하십니다!

여행이 너무 길어서 농산물을 먹기에 너무 멀다면, 본문은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할 지를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으며, 성전에 도착하면 원하는 파티 용품(포도주와 주류 포함)을 무엇이든지 구입하십시오. 십일조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내에서 (토지를 할당받지 않은)사제들과 (거주 3 년마다)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곤핍한 사람들) 잔뜩 먹어야 합니다 - 모두를 위해 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sup>83</sup> 누가복음 9:62

<sup>84</sup> 요한 계시록 3:15-16 여기 "차갑거나 뜨겁다"는 열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sup>85</sup> 창세기 14:17-20

<sup>86</sup> 신명기 14:22-24

신명기 26 장에서 십일조는 다시 묘사되며, 이번에는 제물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전례에 초점을 맞춥니다.<sup>87</sup> 전례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땅이 있습니다. 헌물이 제단에 놓이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해야 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sup>88</sup>

이 전례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의 리허설입니다. 그것은 이전 본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 땅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살기 위한 그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동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성찬식의 순간과는 달리, 위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신하는 신성한 행동은 경외심과 감사로 기억됩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우리의 신앙고백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 그래서 나는 대답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그 경배의 근거는 감사입니다

여기서 다시, 선물과 그 수령인의 포괄적 성격이 반복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sup>89</sup> 하나님의 풍요로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누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환대는 종족과 인종의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 대한 십일조와 그 가치에 관해 질문이 제기 될 때, 이러한 이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십일조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공동체 규범을 수립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종종 받아들일 만한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해 합니다. "내가 얼마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십일조는 벤치마크를 설정합니다.<sup>90</sup> 그것은 출발 장소입니다. 십일조는 예배로 이해될 때 축복의 근원, 우리 자신의 구원의 역사 및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기억할 순간을 만듭니다.

일부 서클에서는 십일조가 "순이익으로" 또는 "총수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총수익"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실하게 어느 쪽 하나를 행한다면,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많은 자원이 있을 것입니다! 십일조에 관해 토론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빈곤층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우리의 나눔"은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sup>87</sup> 신명기 26:1-15

<sup>88</sup> 신명기 26:5-10

<sup>89</sup> 신명기 26:11

<sup>90</sup> 적어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제물이 십일조를 넘어서 만들어 졌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 장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십일조를 천장보다 "바닥"으로 만들 것입니다! 동시에 10%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액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십일조는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되며, 한 번에 한두 퍼센트 씩입니다.

토지의 전체 농산물에 대한 십일조를 넘어서서, 각 남성은 일년에 세 번씩(십일조와 다른)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시다! 이 헌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축제, 주간 축제 및 부스 축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선물의 크기는 각자 축복 받은 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sup>91</sup> 이 기대 위에는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있었습니다.<sup>92</sup> 이것들은 십일조나 헌금에 포함되지 않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갑자기 10%가 넘는 것처럼 보이는 대신 흥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대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되었거나 됩니다.

십일조("법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해 간주되는)는 교회("은혜 아래서" 사는 것으로 스스로를 간주되는)에 의해서 요구되어집니까?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필요했던 것보다 더 적은 것도 아무것도 드리지 말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제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각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연례 헌금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일조를 대신 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일조 "율법"을 고려하는 것은 그 의도(전체 공동체를 위한 규정) 또는 기록된 관행(축하와 감사)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우거나 요구하거나 의무를 지운다면, 우리의 대의를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기부, 예배 참석, 교육 또는 다른 형태의 참여와 투자에 관한 낮은 기대치를 확립하는 것은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의 저하된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십일조는 신약 성서 인용문을 통해 교회에 요구되는 것으로 충분히 논할 수는 없지만, 십일조를 가르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잠재적인 책임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sup>93</sup>

### ***Stewardship and the "Prosperity Gospel" 청지기 직무와 "번영 복음"***

십일조는 말라기서 Malachi 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sup>94</sup> 선지자는 실제로 사람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고발은 이 약속과 함께 이어집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sup>95</sup>

이 말씀이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진술임을 이해합니다. 기근의 기간 동안, 백성들은(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의 모든 십일조 헌물을 보류했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시스템에, 스스로 부과된 결핍을 만들어 냈습니다. 문제(메뚜기의 존재)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거나 돌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것에 강하게 매달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상(주고 받는 것)을 세우는 것보다, "나를 시험해 보라"라는 말은 십일조를 바치라는 행동의 촉구입니다 - 그렇게하면 모든

<sup>91</sup> 신명기 16:16-17

<sup>92</sup> 자선 Alms giving 은 마태 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언급 된 것뿐만 아니라 Tobit & Sirach 의 신명기 책에서 언급됩니다.

<sup>93</sup> 십일조를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창작된 잠재적 자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기 위해, 다음책을 참조하세요 Passing the Plate : Why American Christians Don't Give Away More Money ; Smith, Emerson, Snell. Oxford Press, 2008.

<sup>94</sup> 말라기 3:8 (KJV)

<sup>95</sup> 말라기 3:9-10

사람들에게 충분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없지 않기 위해 풍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설립한 십일조라는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실천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공급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시험"이란 하나님이 기부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도록 유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제안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부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을 위한 부와 번영을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라기 구절을 어렵게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교회에 그러한 이해가 적절한 지를 조사하도록 도전합니다. 축복이나 구원에 관한 성서적 본문에 퍼져있는 공동체적 본성과 도발이나 인간의 노력 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이해를 감안할 때, 우리는 이러한 접근이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알게됩니다.

20 세기 중반 이래로, 주로 개신교의 복음주의 Evangelical 및 오순절파 Pentecostal 의 흐름에서 성장운동이 증가해왔습니다. 이 텍스트는 기부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됩니다.<sup>96</sup> 이 신학적 입장의 핵심 구성 요소인 "부의 복음" 또는 "번영의 복음"<sup>97</sup>으로서 가장 잘 식별되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지자들은 건강과 부의 증가가 강한 믿음(올바른 신념), 긍정적인 사고/말, 종교적 원인 제공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빈곤과 질병은 이 학파에서 죄 와/또는 영적 세력의 결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의 십자가 때문에, 아프거나 가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십일조와 같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강과 번영으로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되면서 그 요점은 분명해집니다 - 번영을 위한 복음 안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하실 것입니다. 기부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부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념 체계에 기부하는 것은 감사 또는 응답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인(공동체가 아닌) 권력이나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에 의해 동기 부여됩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축복임을 반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의 제공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주는 것,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공한 것 이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의 본질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에 따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행동이 명령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법의 말씀"의 수집을 가르치는 직책을 받거나, 자선 사업에 지출되는 달러의 "정확한 수식"을 찾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

<sup>96</sup> 자주 추가된 본문은 눅 6:38; 11:9; 약 1:5

<sup>97</sup> 그것은 또한 "건강과 부유의 복음" 또는 "성공의 복음"으로 명명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제안자들은 19 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더 탁월한 제안자들은 오순절 치유의 전통 안에서 1950 년대에 나타났습니다. Oral Roberts, Rev. Ike, A.A. Allen, Jim Bakker 는 20 세기 후반에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21 세기 초, Joel Osteen, Bruce Wilkinson, Benny Hinn, Kenneth Copeland, Eddie Long, Joyce Meyer, Creflo Dollar 등이 이 신학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부각된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양식과 조직의 세금 면제 상태 사이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회 조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축복하게 하는 입장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적 치료나 물질적 재화의 증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제한을 예외로 합니다. 교회는 문화의 탐욕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전에 중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신념 체계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쉼터 또는 음식이 없이 사는 동안, 롤스 로이스를 운전하고 저택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 엄청난 신학적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아서, 초대교회가 신앙 생활을 했던 방식에 복음과 모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부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응답 임을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1John 의 저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sup>98</sup>라고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도록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창조물 전체에 대해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사드림을 이해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희망하는 제자가 세상에 더 깊이 파고 들면서,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매개체로서의 우리의 기부를 볼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악을 정복하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sup>99</sup>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드러났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의지에 반하는 권한은 물질적인 자원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개인과 구조 안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계적인 인종차별주의는 피부색에 따라 전체 계층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기회를 부정하며, 압도적인 빈곤과 억압속에서 세대들을 묶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유색 인종이 고통받는 것은 자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자신의 삶과 이웃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관용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곳이며, 청지기가 된다는 의미에 대한 다른 이해가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곳입니다. 청지기 직무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체계적 변화를 촉진하고, 가능하게 하는 자원을 신실한 관행으로 옮겨감으로써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 ***Stewardship as Transformation* 변화로서 청지기 직무**

우리는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심을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피조물이 번성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 피조물은 그것을 만들고 지킬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권고를 통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 그리고 동일한 예언적 목소리가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비전을 동시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대로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축복이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조건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파괴와 결핍으로 끝납니다.

---

<sup>98</sup> 요한일서 4:19

<sup>99</sup> 골로새서 1:20



우리의 세계는 망가져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렇게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힘이나 주권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충만함에 참여자로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 박탈당한 자, 소외된 자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예외가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직 자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궁핍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sup>100</sup> 이런 상황은 그들이 있어야 할 방식은 아닙니다. - 예수 때문에 - 그들은 그런 식으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취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투옥된 선생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슴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sup>101</sup> 변화는 단지 먼 미래를 위한 약속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 지금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들 각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똑같은 일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sup>102</sup>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따르는 자들에게 "그 보다 큰 일도 하리니"<sup>103</sup> 라고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일, 즉 어떤 시대에도 교회의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나라는 더욱 드러나고 더 가까워집니다. 사도 행전은 성령의 충만한 영향력 하에 교회가 운영하는 이상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는 그룹은 오순절 Pentecost 에 성령에 의해 갑자기 담대해지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청지기 직무의 행위). 지금 성령에 힘 입어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이 그들의 새로운 삶의 특징인 평등 사회를 형성합니다.

공동체는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이적과 "모든 것을 공통으로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현존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자원을 나눕니다: ...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sup>104</sup>

이것은 청지기 직무와 관련하여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원을 나누는 일을 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가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그 자리를 찾고자 할 때, 청지기 직무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발판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보증하는 자기 방종의

<sup>100</sup> 누가복음 1:50-53

<sup>101</sup> 누가복음 7:22-23

<sup>102</sup> 마 10:5-15; 막 6:7-13; 눅 9:1-6

<sup>103</sup> 요한 복음 14:12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변성으로 느슨한 무리의 "하나님나라 요원들"에 의해 더 많은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sup>104</sup> 사도행전 2:45-47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원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FTER THOUGHTS 추가사항

출처의 수는 다양하지만, 성서는 약 2,300 번에 해당하는 재정 조건/문제에 관련된 돈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많은 신약성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시간의 60% 이상을 돈에 (관련된 재정적인 용어/이슈/예를 사용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캐논안에서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소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 이 주제를 철저히 다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희망찬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성서에 걸쳐 폭 넓은 적용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로 인해 견고한 결론을 내리고 교회에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 50 년이 넘게, 교회가 돈과 신앙에 관한 대화를, 걸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영역에서, 유지하려고 시도한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기의 또 다른 영역에서, 교회는 계획적으로 이 가르침들에 대한 필연적인 정치적 파급 효과를 분리시켜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 고백"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에있는 우리 포부의 친밀한 표현이며, 그러한 염원에 영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반론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유화된 신앙은 구약과 신약 성서에서 공동체 내에서 행해지는 실제 성서의 신앙 묘사와는 상반되며,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대 교회와 정반대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신앙은 여전히 개인을 초월한 공동체의 표현과 의미를 가져야합니다.

현대의 서구 세계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공동의 책임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개인적, 자기만의 경험으로 변화되었고, 사회복지 책임(공익)이 결여되어 있고, 삶의 물질적인 측면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더 큰 관계 네트워크의 일부로 보는 청지기 직무에 반대됩니다. 크리스천 청지기 직무에는, 세상을 넓게보는 "전체 the whole"의 광각렌즈와 공동체의 분명한 이점을 통해 봅니다.

교회는 우리가 나누는 신앙의 공동의 본질을 다시 강조할 가치를 고려해야합니다. 두 성서에서 구원과 축복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온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봅시다. 교회에서 매주일 마다 반복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것들을 구별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 우리를 시험에 들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나라에 대한 희망과 생계 유지, 신실함, 보호에 대한 탄원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속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sup>105</sup>는 말씀처럼 아브람에게 약속된 것이든 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

<sup>105</sup> 창세기 12:3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sup>106</sup>라는 말씀처럼 골로새서의 우주 예수론적 주장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와 함께/안에서/통한 그들의 연합에 의해서 개인에게 이익을 주십니다.

지역 교회와 크리스천 교회(제자회) 모두가 진정한 제자도와 진정한 영성을 위해 "서로의 회원"이 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기 초반에 우리가 예배 참여가 줄어들고 "정규"교회 출석의 정의가 한 달 4 주일에서 두 주일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회중들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들 사이에 적은 소통으로 위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서 더 많은 상호 작용을 하도록 장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STATED ASSUMPTIONS 규정된 가설

청지기 직무는 기금 모금을 위한 종교적 승인 기구가 아닌 영적인 훈련입니다. 연구, 예배, 기도, 타인을 위한 봉사로서 신앙 개발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청지기 직무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다루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공급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무는 선택에 관한 것이며, 많은 것들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소유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나누고, 알게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 역량이나 기능을 넘어선 선물임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청지기 직무란 삶 자체가 선물이자 은혜의 척도라는 개념을 포용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제자로서의 기본이며, 건강한 공동체의 창조에 필수적이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명령을 수행하는데 필요합니다. 청지기 직무의 표현은 창조를 위한 의도적인 보살핌, 안식일 준수, 우리의 마음과 몸에 대한 사랑의 관심, 복음의 나누기, 물질적 자원의 적절한 관리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고 더 깊은 대화의 진입점입니다.

예산 조달, 교회 재산 유지, 조직/기관의 운영/생존과 관련하여 청지기 직무의 좁은 견해만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교회 단체는 스스로 집중하고 자유롭게 나눌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방인을 환영하고, 가난한자를 옹호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노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문화적 규범을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결핍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이 불안은 종종 이웃과 낯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쌓아두고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것의 예언적인 증거는 현재의 문화에서 다양한 수준의 안락함을 발견하고 현상 유지를 위한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원들(기여자)을 소외시킬 위험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청지기 직무의 총체적인 실천에 헌신하는 교회 단체는 그 헌신의 결실로서 자원의 신중한 관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며 이웃과의 공동체 건설자, 환영의 자애로운 장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작은 것으로 묘사하는 문화적으로 부과된 개념에 반대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한 단체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

<sup>106</sup> 골로새서 1:20

풍성함과 공급을 믿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진실을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대담하게 사명과 사역을 수행합니다.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성장하고 건강하고 번성하는 종교 공동체의 사역에서, 사역의 초점이 회중의 상황을 둘러싼 큰 원과 이웃을 향하여 "외부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sup>107</sup>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가 고투하는 지역의 한 가지 일관된 특징은 사역의 초점이 생존을 염두해 두고 특정 회중이나 조직의 벽 내부에 있는 이기주의(반드시 악의 또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와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험에서 이 상관 관계를 무시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관용의 관행을 포함하여, 청지기 직무의 전체적 감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신 사명을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더 큰 비전을 공동으로 제정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표현에 걸쳐 그들의 언약적 파트너들과 자원(인간 및 재정적)을 나눌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것입니다: 조각난 세상에서 온전함을 위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

#### **FOR CONSIDERATION 고려해야 할 사항**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크게 기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전체론적 청지기 직무에 대한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도자, 회원 및 협력 파트너에게 제자도의 행위로 가르쳐야 합니다.
2. 목사, 장로 및 선출된 제직은 모범을 보이며 성실하게 이끌어야 하고, 관대함의 개인적 실천으로 성장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3. 교회는 모든 표현에 있어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실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에너지, 물,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 "감소, 재생 및 재활용"의 실천과 지구를 보다 가볍게 걷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한 실천을 모델화한 교회는 회원들에게 똑같이 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4. 교회는 우리 문화의 습득 성격과 환경을 유지할 수 없거나 환경 및 형제 자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계속 사용하는 결과에 대해 숙고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의 기대와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시간과 장소에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우리의 예언자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5. 교회는 관대함을 실천해야 하며, 교회가 즉시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선적으로 최소한 운영 수입금의 10%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십일조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

<sup>107</sup> Barbara Lynn Fullerton, *Growing Generosity* 성장하는 관대함 : Identity as Stewards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캐나다 연합 교회에서 청지기로서의 정체성, May 2009.

6. 성공적인 자원 지원을 위해 사명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교회 및 관련 기관은 사역을 위한 현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평가하여 교회의 역량과 상황에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격려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자신의 재정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조직에 시간과 돈을 기부합니다.
7. 재정적인 건강을 달성하고(신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회 및 관련 부처는 금전 및 재정적 자원을 다루기 위해, 업계가 합의한 표준을 이해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투명성, 내부 통제, 감사, 예산 창출 및 모든 자산 그리고 부채 및 재정 정책에 대한 발표된 보고서는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교회의 연간 수입/지출! 또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8. 돈은 종종 개인과 가족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교회는 돈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르치고 관대함을 실천할 능력을 증가시키는 개인 재정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9. 교회는 성경적 청지기 직무를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치기 위한 헌신의 한 부분으로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돈의 파워, 올바른 사용, 유익한 측면, 해로운 위험 및 효과적인 돈 관리에 관해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원(자연적, 인간적, 경제적)의 적절한 사용은 지구의 장기적인 건강과 복지와 가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모든 부분에 필수적입니다.
10. 교회는 청지기 직무의 대화를 1년 내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례 캠페인을 3주간의 스프린트(그리고 청지기 직무라는 말을 자주하는 유일한 시간)로 보는 것보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지기의 모든 측면을 유지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1. 신앙 공동체는 의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회원들과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교회는 성경의 유언에 대한 선물을 논쟁의 포인트가 아닌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도록 분명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삶의 끝에서 청지기 직무를 포함하여, 청지기 직무를 가르치는 것은 놀라움 또는 희귀한 사건이 아닌 그러한 선물을 규범으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한 선물은 교회나 관련 기관의 사역과 사명을 미래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복음과 그와 관련된 보살핌과 연민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12. 자산을 소유한 교회 및 기타 교회 관련 조직은 자신의 유산 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현존하는 사명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명과 사역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3. 크리스천 교회(제자회)에서 연약적 파트너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앞에서 지구 끝까지 우리가 나누는 공동의 사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의 나눔의 증거가 최대한 표현될 수 있도록 서로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14. 사명과 사역 우선 순위는 재정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예산은 교회를 섬겨야 하며, 반대 방향으로서는 안됩니다. 교회 전체에서 신중한 책임을 지는 모든 조직 구조는 이를 운영 정책 및 문화적 실천으로 채택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 **PRACTICAL APPLICATIONS OF STEWARDSHIP IN OUR TIME AND PLACE IN THE 21ST CENTURY**

### **21 세기, 시간과 장소에서의 청지기 직무의 실제적인 적용**

사회 정치적 스펙트럼의 최근 변화는, 21 세기 초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방식과 협상하려고 할 때, 청지기 직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분리주의의 증가, 남중국해에 대한 정부의 침략, 그리고 미국의 민족주의의 정치적 풍토에 대한 추세는 모두 더 많은 고립과 더 큰 특권적인 지위(경제적 권력)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국가는 서로 경쟁(협력보다는)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두 성서에서 하나님나라의 현존의 징조로서 증거된 가치를 손상시킵니다: a) 그것은 현대의 급진적인 환영에 반대합니다(왜냐하면 민족주의는 우리의 경계 밖에서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 국가의 정부 및/또는 강력한 엘리트들에 의해서 통제될 부의 집중으로 인해, 전체 공동체에 의한 경제적 이득의 분배가 폐지됩니다.

역사적인 관점은 국가가, 자원과 경제 요소의 통제에 관한 현실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경계를 넘어서, 보다 편협하고 덜 협조적 일수록, 갈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자원을 결집시키고, 격렬한 갈등 속에서, 삶의 손실과 환경 피해를 초래합니다. 갈등이 '차가운' 것이든, 아니면 완전 전쟁으로 발전하든, 그러한 조건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불균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sup>108</sup> "만들어진 모든 총기, 발사되는 모든 전함, 불을 뿜는 모든 로켓은 결국 굶주림에도 먹지 못한 사람들, 추위에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도둑질을 의미합니다."<sup>109</sup>

성경의 청지기 직무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설립에 관한 대안적인 현실과 지구 자원으로 생성된 부의 나눔을 위한 소유물의 적절한 사용으로, 아무도 곤경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상황에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목소리를 가진 이해 당사자입니다.

### ***A Specific Example of Engaging a Social-political Issue Based on Stewardship Concerns***

#### ***청지기 직무에 기반한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사례***

미국 내에서 환경과 더 많은 명백한 부의 집중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2017 년 1 월 3 일 공고된 미 의회 예산에 대한 미묘한 규정 변경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 토지를 지방 정부에 이전하는 비용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이

<sup>108</sup>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국제 분쟁시 군사/산업 단지에 대한 자원 배분은 음식물 지원, 건강 관리 및 주거를 포함하여 빈곤층의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자원을 보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제적 우선 순위의 재분배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예술, 일반 인프라, 비군사적 연구 투자 및 교육을 포함하여 국가 주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이 전쟁이 될 때, 전투의 결과로 잡힌 민간인은 "부수적인 피해"로 기본 자원 없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나, 종종 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도움과 안락함을 제공받습니다.

<sup>109</sup> 미국의 34 대 대통령 Dwight D. Eisenhower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무해한 절차적 법안은, 직접적으로 그렇게하지는 않지만, (현재 모든 미국 시민의 공적 유산으로서 공공의 신뢰 속에 자리 잡고있는) 토지를 개발자와 산업계에 판매하고 민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미래 입법을 가능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토지의 자원이 착취당함으로 민영화된 접근과 잠재력을 창출합니다.<sup>110</sup> 지구를 돌보고 공익을 위한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과 같은 청지기 직무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 직무의 문제의 흐름을 한 점에 모으는 방법- 이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과 지구 관리<sup>111</sup> -과 정치적 영향을 나타내는 한 예입니다.

이것들은 이 시간과 장소에서 청지기 직무의 관련성에 관한 실제적인 적용을 제안하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입니다. 인용될 수 있는 예의 수는 많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교회(제자회)의 지역, 지방회, 각종 전체모임 안에서 미래의 대화를 위한 시작 장소로서, 넓고 좁은 의미에서, 이것들을 제공합니다.

### ***Final Comment 마지막 코멘트***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특히 "차세대"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때, 이 시대와 장소에 독특하게 부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 Millennials 와 X 세대(Gen X)라고 부르는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진부하고 편협하고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종교에 의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방법은 좋은 종교를 가지려고, 나쁜 과학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식탁에서의 하나님의 급진적인 환영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그들이 믿는 것이 피곤하고 부적절한 사회적 분류에 근거한 사람들의 편협함과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대에게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의 구조는 가입 기관들과의 신뢰 관계를 추구하는 세대들과 적합합니다. 지역 자치로 표현된 우리의 자유는 교회가 있는 독특한 공동체 상황에 맞는 예배, 영적 형성 및 사역을 초래합니다. 최선으로, 우리는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적응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진실은 우리가 금세기에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초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 아래에 넣고 우리의 빛을 숨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화해 사명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충실한 재정적인 관대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21 세기에 우리는 복음주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복음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이 문서가 고려될 때, 현재 교회가 스스로를 발견하는 곳인 깊은 문화적 분열의 시기에 중요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에게 속한 진리와 분리시킬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큰 희망의 소중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sup>110</sup> David Horsey, The Los Angeles Times, January 5, 2017.

<sup>111</sup> 이는 비용을 늘리고 생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광업, 임업 및 기타 중공업 분야의 환경 규제 완화를 모색하는 정치적 맥락에서 더욱 악화됩니다.

**This vision of the prophet Isaiah (Chapter 55) is offered as a closing reflection:**

**선지자 이사야 (55 장)의 이상을 맺는 말로 제시합니다**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sup>112</sup>

---

<sup>112</sup> 이것(그리고 이 문서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인용문)은 NRSV @1989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에서 온 것입니다